



##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름철 장마·태풍 대비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논산 산동배수장 합동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하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등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조치·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강경만 (044-201-1871)
		담당자	사무관	송영호 (044-201-1874)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강성희 (044-205-5310)
		담당자	사무관	지경용 (044-205-5321)

